

# 주거에서 발생하는 공간-권력에 대한 담론 연구\*

- 푸코와 라캉의 후기구조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Discourse of Space-Power in a Dwelling Space

- Focus on the Post-structuralism of Foucault and Lacan -

Author 안은희 An, Eun-Hee / 정회원, 국민대학교 동양문화디자인 연구소, 공학박사

Abstract This thesis sets out to study the immanent mechanism of architecture which had classified as external spaces in general. As human controls a space, it controls or manages human's behavior, too. This study is depended on the humanities to analyze a various operation of power in the architectural space. It makes a comparative study of a space-power in a dwelling space through a discourse of Michel Foucault and Jacques Lacan, in particular everyday's microscopic scope. According to analytical results, the space-power of dwelling falls under the influence of a spacial arrangement and subject's desire. It has shown a noticeable characteristics in aspects production & consumption, using behavior, and use value. As it is seen through the aspects of production & consumption, owns of the space-power in a dwelling could not be its subject. We have also understood about a physicalistic furniture at the using behavior, it has a special power unconsciously to control a human's action and lifestyle. And then in the aspects of use value, the centric theme is a television. It lies on the core of space-power in dwelling, because is profoundly related to an innate respect of a dwelling value. In conclusion, so this study has the important meaning in the side to offer some interpretative possibility about the architectural space-power through a microscopic structure.

Keywords 권력, 미셸 푸코, 자크 라캉, 욕망, 주거, 공간-권력, 담론  
Power, Michel Foucault, Jacques Lacan, Desire, Dwelling, Space-Power, Discours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하고, 노래방에 가면 노래를 부르고, 술집에 가면 술을 마신다. 물론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특정한 장소에서는 그 장소에 적합한 행위가 일어나게 마련이고, 그런 행위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생기게 된다. 그 공간에서는 그 행위라는 공식이 정확하게 대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특정한 공간은 특정한 행위를 일으키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전제에서 본다면, 공간은 애초에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힘(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행위는 특별한 공간적 장치를 통해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인간이 공간을 지배할 수 있듯, 공간이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일찍이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에 의해서 논의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적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권력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인문학적 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간' '주체' '권력'과 같은 관계론적 담론을 건축적 공간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건축의 물질성에 가려져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건축의 심층적 영역을 추론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권력이라는 추상적 담론을 건축이라는 실재적 차원에서 논의해보는데 있다. 특히 권력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주거공간을 대상으로 삼아 공간이 권력화되는 과정을 추적해 본다면, 공간-권력은 더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대상으로써 실체화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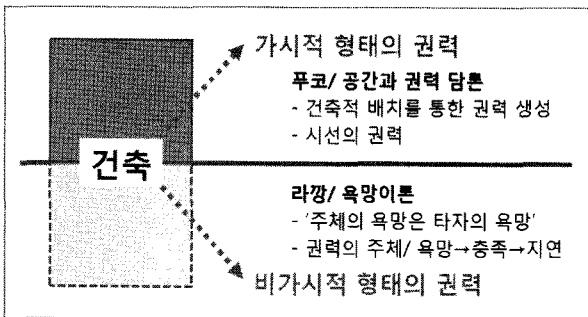
### 1.2. 연구 대상 및 방법

공간-권력이라는 인문학에 기초한 담론을 건축 영역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411-J05001)

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구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연구방법론을 엄정하게 세우며 접근해야 하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을 주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주거 공간의 물리적인 측면만을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분석의 특성상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례와 방법론을 가져와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거시적인 담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로 미시적 차원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사회문화 현상 전반에서 드러나는 주거공간의 특징을 통찰하기 위해 영화와 TV 프로그램과 같은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사례들을 주로 사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정확한 표본사례가 되기는 힘들겠지만 일반적인 문화현상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례들은 될 수 있기에 연구대상으로 일정정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방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주로 미셸 푸코의 논의를 기본으로 가져오고, 주체의 무의식적 욕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논의를 사용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건축적 공간-권력을 담론적으로 해석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그림 1> 연구 방법론 다이어그램

연구의 개요를 살펴보면, 2장에서는 주로 공간에서 권력의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고 배치와 주체의 관점을 중심으로 공간-권력 담론의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 3장에서는 주거에서 나타나는 공간-권력의 사례를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춰 개괄적으로 살펴본 이후 주거 속 공간-권력을 생산과 소비·사용 행태·사용 가치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건축에 내재되어 있으나 의식적인 표면현상으로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건축 공간에서의 권력의 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서술해보고자 한다.

## 2. 공간-권력 담론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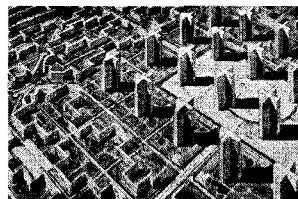
### 2.1. 공간에서 권력의 문제

공간과 권력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공간에서 권

력이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과연 권력이라는 것이 공간 속에서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선 공간에서의 권력의 존재 유무에 대한 문제는 접근 방향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적 접근법에 의하면 공간은 균질적이다. 데카르트(Rene Descartes)는 공간을 x, y, z축에 의해 위상이 판별되는 균질적인 매트릭스로 이해했다. 그러나 동시대의 라이프니츠(G. W. Leibniz)는 공간의 잠재성 개념을 통해 실제적인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주름지어진 공간의 상대적 특성에 주목했다. 공간을 균질적인 존재로 판단한다면, 공간은 좌표상의 위상적 차이만 가질 뿐, 권력과 같은 가치적 차이는 갖지 않는다. 그러나 공간의 잠재성에 주목해보면, 공간에서 상대적인 가치 판단도 가능해진다. 주름지어진 잠재적 층위의 공간이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해 실제적 층위로 펼쳐질 때,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 이상의 가치-의미를 띌 수도 있다. 또한 경험 주체의 공간에 대한 지각이나 관계 방식의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더더욱 건축에서 공간을 가치중립적인 무엇으로만 이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르 꼬르뷔제가 1920년대 제안했던 <파리 계획안(Plan Vision for Paris, 1925)>에서 도시-공간은 잠재성의 영역에 있던 추상적 개념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도시는 르 꼬르뷔제가 꿈꾸었던 이상도시라는 잠재성의 층위가 실제적 층위에서 현실화된 모습을 띄고 있다. 데카르트의 균질공간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존재-경험적 가치판단이 공간에 부여되어진다.



<그림 2> Le Corbusier, Plan Vision for Paris, 1925



<그림 3> 잠실 미성아파트, 1981

이처럼 공간을 물리적 개념 외의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면 공간에서 ‘권력’은 논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특히 인문학이나 과학 분야에 비해서 건축은 상대적으로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공간을 형성한다. 특히 건축에서 공간의 내밀한 특성은 공간과 권력의 문제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내밀성(intimacy)이란 드러나지 않는 것, 자신만의 고유한 것, 따라서 자신의 내면에 속한 것이다.<sup>1)</sup> 인간이 지속적으로 공간의 내밀함을 지향하게 되는 이유는 외부 공간의 낯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인간은 내부 공간을 형성하고, 그 공간을 점유(appropriation)하여 안정감을 취하려는 욕망을 가진다.

1)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2000, p.231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현상을 환경심리학에서는 ‘영역보존’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영역은 한 명 또는 더 많은 개인들에 의해 통제되거나 소유되는 장소이다.”<sup>2)</sup> 카스텐 해리스(Kastern Harris)에 따르면, 건축은 “공간을 길들이는 행위으로써 공간(space)으로부터 살만한 장소(place)를 만드는 것”이라 한다.<sup>3)</sup> 이처럼 인간은 공간을 구축하는 행위, 즉 공간을 전유·지배하는 행위를 통해 심리적·환경적·공간적 안정감을 얻고자 한다. 공간에서 장소로의 전환, 즉 건축 행위란 공간을 전유하고 지배하여 사회·물리적 공간을 개인·심리적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일련의 공간 실천인 것이다.<sup>4)</sup>

이처럼 건축은 공간 실천을 통해 권력 구조를 만들어 간다. 이때 인간이 행하는 공간 실천은 상대적인 공간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질적인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sup>5)</sup> 인문지리학자인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에서 거리 마찰이라는 작용이 공간의 지배와 전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거리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즉 외부 공간의 이질감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내부화하려는 이러한 인간 욕망의 속성은 외부의 시공간을 압축하여 내밀한 영역으로 귀속시키려는 공간-권력의 욕망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간을 데카르트적인 접근법에서와 같이 균질-추상적 대상으로 국한시켜서 보지 않는다면, 즉 공간을 건축과 같이 인간의 존재기반인 상대적 영역의 대상으로 접근해 본다면, 공간에서 권력의 문제는 푸코의 관점처럼 생성되는 동시에 작동되는 불가분의 관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사유가 언어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듯이, 인간의 행태는 공간의 틀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공간은 인간 주체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이 지배를 위해 공간을 만들었지만, 그 공간에 의해 또 다른 지배를 받게 되는 모순적 관계에 대한 고찰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 2.2. 배치와 시선을 통해 생성되는 공간-권력

영화 <타인의 삶 (The Lives Of Others, 2006)>에서

- 2) Fisher, Bell, 환경심리학, 이진환 외 2인 역, 학지사, 1997, pp.280~281
- 3) Harries, Kastern, Building and the terror of time, Perspecta: the Yale Architectural Journal 19, 1982, pp.59~69
- 4) 안은희, 공간-환상을 통해서 본 현대실내건축의 특이성 연구, 경원대 박논, 2008, pp.66~68
- 5) 인간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영토—그것이 우주와 같은 미지의 영역 일지라도—를 정복하고, 지도를 제작하고, 행정적 공간을 기획하는 등의 공간적 실천을 통해서 이질적인 공간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을 최소화하며 인위적 동질화를 시도한다. 즉, 인간은 외부라는 인지 밖의 영역과 내부라는 인지 내의 영역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돌과 괴리감을 최소화하며 끊임없이 외부를 내부에 복속시키려 한다. Ibid., p.67
- 6) Harvey, David,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희·박영민 역, 한울, 2000, pp.261~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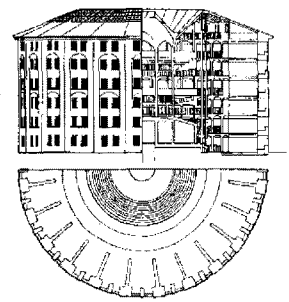
주인공인 동독의 비밀경찰 비즐러는 영화 속 내내 자신의 감시 대상인 극작가 드라이만을 묵묵히 지켜본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감시(監視)보다 감청(監聽)이 주였지만, 비즐러는 감청한 내용을 토대로 드라이만에 대한 정보들을 축적하게 되고, 그의 반역 행위까지 포착하게 된다. 비즐러는 드라이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비즐러의 선택이었다.

누군가를 지켜본다는 것은 그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 앞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대한 영향력은 함께 커지게 된다. 권력은 시선과 지식을 동반하며 발생한다. 또한 이와 같은 시선의 권력은 대개의 경우 공간을 권력 관계를 변형시키기 위한 질료로 삼게 만든다. 권력을 허용하게 만드는 시선에 대한 특별한 공간적 기술과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푸코가 다양한 역사적 조건들 속에서 살펴보았다. 「광기의 역사」나 「감시와 처벌」같은 책에서 푸코는 권력을 허용하거나 저항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관계 생성의 특정한 기술이 있다고 보았고, 그 사회적 관계들은 공간적으로 짜여지고 분절된다고 분석하였다.

푸코는 권력을 생산하는 공간 장치의 사례로 판옵티콘(panopticon)을 들었다. 판옵티콘은 18세기 당시 망원경과 비슷한 광학기구를 지칭하는 용어로, 그 어원은 ‘다 본다(all seeing)’는 의미를 가지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고 원형감옥을 뜻한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제안한 죄수 교화 시설로서, 그 공간적 특징으로는 한 곳에서 모든 곳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판옵티콘의 평면을 살펴보면 중앙에는 감시탑이, 그 바깥쪽으로 빙 둘러서는 죄수의 방이 배치되어 있다. 이때 죄수의 방은 항상 밝게, 중앙의 감시 공간은 항상 어둡게 유지한다. 배치의 특성상 죄수는 자신을 지켜보는 간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언제나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간수가 보이지 않아도 규율에 맞게 행동하게 된다. 결국 판옵티콘은 간수가 보이지 않아도 스스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즉 규율의 ‘내면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시선의 감시 장치이다. 이때 시선은 곧



<그림 4> 영화 '타인의 삶', 2006



<그림 5> 미셸 푸코, 판옵티콘 모델 도면

자격을 부여하고 분류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감시 자체가 되고, 이러한 감시의 시선은 건축적 배치에 의해 가능해진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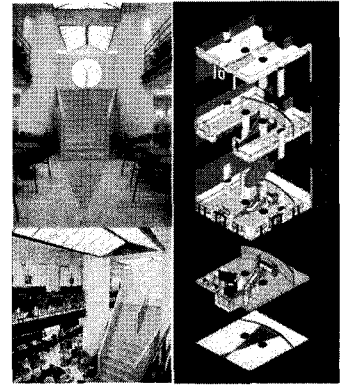
이처럼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시선 장치들은 권력의 생산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또한 이러한 시선 장치들은 공간적 배치에 의해서 조절된다. 위의 영화에서 감시를 당하는 장소인 드라이만의 집과 감시를 하는 장소인 다락방은 한 아파트 건물 내에서 수직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수직성은 권력을 생산하는 공간적 장치의 힘을 상징하는 듯 보인다. 비록 같은 공간 내부에서 수평적인 시선이 닿지 않아도 소리라는 매체가 전달되는 수직적인 공간적 배치를 통해 감시의 권력을 영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권력이라는 것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의미한다. 누군가 나를 지켜봄으로써 나의 일거수일투족과 나의 생각을 알게 된다는 것은 나에게 행사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나를 지켜보는 그 타인에게 이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 권력의 이임 과정에서 공간의 배치는 이처럼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푸코는 권력의 문제를 '관계'의 개념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체, 대상, 인식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주체설정, 대상설정 그리고 인식형성의 과정을 문제 삼는다. 이러한 시각에 근거해서 본다면, 건축적 공간에서 권력의 문제는 권력이 생산되는 과정(설정)의 문제, 즉 공간적 배치의 문제가 된다. 공간적 배치는 공간적 관계맺음에서 상대적으로 생겨난다.<sup>8)</sup> 배치는 이웃하는 다른 구성요소와 접속하는 방식이자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단위이다.<sup>9)</sup> 건축 공간에서 배치는 시선의 상대적인 계열을 통해 주체에게 권력을 부여해주는 동시에 공간 스스로가 권력의 주체가 되어 주체를 공간에 속박시키기도 한다.<sup>10)</sup> 이처럼 건축적 공간들의 관계, 그 공간과 주체와의 관계에서 배치는 권력과 동일한 외연을 가지게 된다.

### 2.3. 주체와 욕망 관점에서의 공간-권력

프랑스 디자이너 필립 스타크(Philippe Starck)의 <카페 코스트(Cafe Costes, 1984)> 사례는 공간에서 주체들이 가지게 되는 권력의 문제를 가시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 카페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공간은 가운데 부분의 계단

이다. 이 계단은 마치 연극무대의 세트처럼 보인다.<sup>11)</sup> 당장에라도 우아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여배우가 천천히 내려올 것만 같은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이 계단이 드라마틱한 느낌을 자아내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계단의 반-원근법적인 형태와 중심



<그림 6> Philippe Starck, Cafe Costes, 1984

성을 가진 배치를 들 수 있다. 평면도를 보면 계단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정면에서 마주치게 되는 공간으로, 소실점으로 모아지는 형태를 역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형태와 강한 중심적 배치를 통해 카페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계단을 향하게 된다.

이 카페에서 계단을 커피를 마시는 행위 이상을 압도하는 과장된 행위, 즉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위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힘을 가진 공간 장치로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자신에게 주목되어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데, 이는 애초에 스타크가 무대와 같은 과장된 디자인을 통해서 그 공간의 사용자들이 체험하기를 바랐던 의도 그대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건축·실내건축에서 공간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디자이너가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디자이너는 공간 속 주체들의 행동과 의식을 미리 상정하고 디자인을 전개한다. 즉, 디자이너는 디자인 의도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공간-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가 항상 정확하게 부합되는 것만은 아니다. 계단을 내려와 테이블에 앉은 순간 주체가 경험했던 환상과 동일화는 사라진다. 주체는 계단을 다시 바라보며 자신이 경험했던 공간적 환상을 거리를 두고 자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거리두기의 커뮤니케이션을 메타 커뮤니케이션<sup>12)</sup>이라 부른다.

디자이너는 철저하게 사용자의 지각과 경험을 물질 공간 속에서 통합시키려는 의도(권력행사)를 가지고 공간을 디자인하지만, 그러한 의도는 항상 일치되지 못하고 미끄러진다. 라캉은 기표와 기의의 미끄러지는 현상에 주목하며 주체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고 항상 결핍되는

7) Foucault, Michel, 감시와 처벌, 오성근 역, 나남, 2003

8) 이진경은 동일한 하나의 공간도 침대와 접속되면 침실이 되고, 책상 및 책들과 접속되면 사무실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계열화가 조건에 의해 반복될 때, 그 반복적인 계열화를 '배치'라고 정의하였다.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사, 2002, p.52

9) 오창섭, 9가지 키워드로 읽는 디자인, 세미콜론, 2007, p.101

10) 공간이라는 것은 주체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여부를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더 큰 틀에서는 주체들의 선택 여부가 이미 제한된, 즉 선행적 조건으로써 인간의 행동과 의식을 조절하고 지배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11) 필립 스타크는 초기 디자인에서부터 현재까지 과장된 연극무대와 같은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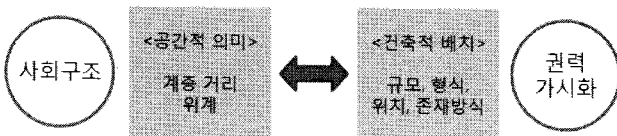
12) 메타 커뮤니케이션(meta communication)은 커뮤니케이션 중에 메시지를 구성하는 기호를 기호로 인식하여 메시지가 자동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부터 메시지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 가치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메시지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눈을 돌리는 행위이다.

관계를 욕망이론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sup>13)</sup> 라캉의 욕망 개념에서처럼 건축에서의 공간-권력 또한 생산자의 의도 그대로 생성되지도 않고 고정되어 있지도 않다. 간혹 공간-권력과 주체의 관계가 때로는 고정점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미세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관찰해보면 마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 채 다른 욕망으로 넘어가듯이 계속해서 다른 공간-권력 또는 다른 주체로 이동해가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의 공간-권력의 속성을 가장 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을 듯 보이는 주거 공간에서 찾아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 3. 주거 속 공간-권력 분석

#### 3.1.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접근

주거는 해당 시대의 사회구조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수용한다. 사회학에서 사회구조란 계층, 사회집단, 사회제도 등 여러 요소 위에 성립된 통합적 구조체를 뜻한다.<sup>14)</sup> '구조'라는 단어가 여러 요소의 공간적 배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볼 때, 사회구조 또한 공간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사회구조는 계층/집단 간의 사회적 거리 및 위계와 같이 공간적 성격을 띤 요소들의 배치를 가지고 있고, 각 시대의 사회구조는 건축의 권력적 배치를 통해 거시적·미시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



<그림 7> 사회구조와 건축적 권력의 상관성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사회구조를 결정했던 신분제도와 농경 중심의 경제구조는 당시의 주거문화와 공간적 특징에서 잘 나타난다. 거시적 권력의 배치는 각 신분제에 따라 각기 다른 주거의 규모 및 형식이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시적 권력의 배치는 일상의 영역에서 드러나는데, 일례로 양반집에서 식사하는 풍경의 밥상의 배치 등에서 사회구조의 단편이 드러난다. 사회구조의 변화는 주거의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주거를 통해 사회구조의 변화추이를 따라가다 보면 공간에서 권력의 문제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변화하는지가 쉽게 추적된다.

13) 안은희, 공간-환상을 통해서 본 현대실내건축의 특이성 연구, 경원대 박논, 2008, pp.18~40

14) 사회구조의 원리는 생산관계에서 규정된 계급원리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며, 사회구조는 개인이 사회관계에서 지위와 역할에 따라 상호의존적으로 관계 맺는 범위나 행동양식을 정해주는 사회적 틀을 의미하기도 한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84730>, 2011-06-24

20세기는 특히 19세기말부터 시작된 사회구조의 변화가 근대화와 함께 진행되면서 주거의 공간적 형식까지 변화시킨 시기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출현하게 되면서 주거 또한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전까지 우리에게 주거는 일상과 비밀상이 함께 혼재된 장소였지만,<sup>15)</sup> 근대화 이후에 주거에서 관혼상제, 생로병사의 행위들이 주거 외부로 이양되면서, 주거는 사적(私的) 성격과 기능이 점차 강화되는 장소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안방은 이러한 사적 변화 특성이 잘 드러나는 사례이다. 전통공간에서 안방은 여성 중심의 공간으로 취침, 식사,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이 일어나는 공간이었다. 근대화 이후에는 남성의 근로와 사교 영역이 사회로 옮겨감에 따라 사랑방의 기능이 일부 흡수되어 가족 모두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이웃들이 모이는 교류의 기능이 안방으로 흡수되었다.<sup>16)</sup> 이후 본격적으로 주거가 서구화되면서 현재에 이르러서 안방은 부부만의 내밀한 사적 공간으로 기능이 축소되었다.



<그림 8> 1970년대와 2000년대 안방의 기능변화

주거의 어느 특정 공간의 기능과 성격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은 그 공간에서 수행해야 할 지향-가치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주거의 어떤 기능들은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한다. 특정한 공간이 주거 공간 전체에서 사용빈도가 높거나 가장 큰 면적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공간이 전체 배치 상 가장 큰 공간-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정작 권력 문제에서 중요한 지점은 그 공간이 당 시대의 사회구조에서 지향하는 목표에 맞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냐 하는 것이다. 안방은 실의 기능 분화로 대표되는 근대적 생활양식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 온 관계의 장(場)이었고, 현대적 의미의 사적 경계가 가시화된 배치의 장이었다.

15) 조선시대의 전통 주택은 일상과 비밀상의 모든 생활을 수용하는 장소였다. 또한 집과 일터의 구분 없이 생산과 소비가 주거공간 내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 인간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에서부터 교육과 혼례, 병자 간호, 노인 봉양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모두 주거공간 내에서 경험했다. 전남일·양세화·홍형욱, 한국 주거의 미시사, 돌베개, 2009, p.185

16) 안방이 단란과 교류의 기능까지 수행했던 이 시기는 아직까지 '거실' '용접실'이 본격적으로 분화되기 전이었다. (대청)마루가 거실이라는 명칭으로 변화되고, 완전한 독립적인 거주공간으로 기능이 확립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Ibid., p.240

주거 속 지향-가치는 공간-권력의 가시적 형태를 띠며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안방의 사례에서처럼 변화하게 된다. 공간-권력은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무엇이 아니라 주체와 사회구조와 같은 외부요인들(사회, 문화, 역사, 지역성 등)이 맺는 관계의 형태에 따라 변화하고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대략적인 접근을 통해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 3.2. 생산-소비적 측면 ; 소비주체의 욕망-권력

현대 한국 주거의 대표 모델은 아파트로서, 아파트의 단위평면은 주택 구매자의 니즈(needs)에 대한 응답이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의 브랜드화는 주택시장의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기능성에서 상징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건설사들은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차별화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건설사들의 마케팅 키워드는 소비자들의 욕망을 상징하며 대리하는 용어일 수 있다.

<표 1> 주요 건설사들의 아파트 브랜드 마케팅 현황

| 마케팅 전략    | 건설사    | 브랜드    | 의미                                   |
|-----------|--------|--------|--------------------------------------|
| 품격+감성 강조  | 삼성물산   | 레이안    | 미래지향, 고급                             |
|           | 대우건설   | 푸르지오   | 친환경, 생활문화공간                          |
|           | 롯데건설   | 롯데캐슬   | 중후함, 고급                              |
| 기능+이미지 강조 | LG건설   | 자이     | Extra Intelligent                    |
|           | 현대산업개발 | I-Park | Intelligent, Innovative, Imagination |
|           | 대림건설   | e-편한세상 | 정보+자연환경                              |

최근 연구논문에 의하면 브랜드 아파트 132㎡~164㎡ 면적대를 기준으로 볼 때 단위평면에서 몇 가지 두드러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베이(Bay)의 수가 늘어나고, 거실이 평면의 중심에 배치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안방에는 다양한 부속실들이 부가되며, 안방 이외의 침실의 수를 늘리기 보다는 거주자의 사용요구에 따라 변형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 추가되고 있다.<sup>17)</sup> 다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아파트의 단위평면구성이 대개의 경우 소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sup>18)</sup>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아파트를 변형시키는 권력의 힘이 생산 주체보다는 소비 주체의 욕망의 문제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게 한다.

서운영은 주거에서 주체의 욕망이 투사되는 모델로 '서재'를 제시하였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학력자본과 문화자본이 경제자본으로 환원되는 사회에서 서재라는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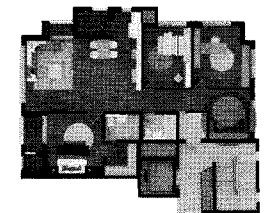
간은 그 자본을 습득하는 상징적 장소가 된다. 그런 이유로 형태와 기능이 재대로 갖춰지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아파트 문화에서 '서재'라는 명칭과 외형은 반드시 갖춰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9)</sup> 서재와 같이 한국의 주 생활양식에 기능적으로는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으면서도 욕망을 대리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최근에 '알파룸'이 대두되고 있다. 알파룸은 다변적 사용이 가능한 여분의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sup>20)</sup> 대부분의 경우 서재를 별개의 독립된 실로 구성하기 힘든 중형 규모에서 나타나는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서재, 취미 공간, 유아 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알파룸이라는 단어에는 명확하게 기능이 지정되지 않는 모호함이 담겨 있다. 서운영이 지적했듯이 사물의 명확한 속성에 따라 사물의 이름을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주체의 욕망이 투사된 형태로 명명 또는 호명한다고 볼 때, 알파룸은 현대 소비사회에서 대타자의 모호한 욕망의 실체를 욕망하고자하는 소비 주체들의 심리적 단편을 드러내고 있다. 알파룸이라는 명칭은 명확하게 기능을 명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기 주도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욕망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주체로 하여금 끊임 없이 설정하도록 강요하는 강박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라깡적 의미로 주체의 결핍을 드러내는 기표로 볼 수도 있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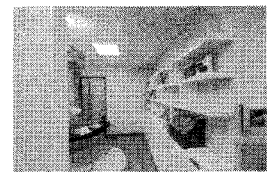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선 <표 1>에서 등장하는 브랜드 아파트의 마케팅 전략 어휘인 품격, 감성, 미래지향, 고급, 친환경, 인텔리전트 등과 같은 어휘들도 결국 현재 한국의 소비 주체들이 욕망하지만 결코 충족시키지



수원 SK뷰 34평형, 2010



광교 대광 로제비앙 33평형, 2011



<그림 9> 알파룸 사례

19) 서운영, 건축, 권력과 욕망을 말한다, 궁리, 2010, pp.111~112

20) 알파룸은 1960년대 존 하브라켄(John Habraken) 교수의 주거 시스템 이론인 '서포트(support)'에서 제시된 것으로 각각 알파, 베타, 감마준으로 나누어 주거공간에서 각각의 특징을 설정하며 사용된 용어이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대한주택공사연구소에서 평형 개발의 근거로 연구한 바 있으며 2000년대 중반에 건설회사에서 소비자들에게 자사 평형의 특이성을 홍보하기 위해 제도입하였다.

<http://everything2.com/user/kohlccass/writups/order+and+flexibility+in+large-scale+housing+projects> 참조, 2011.07.18

21) 안은희, 건축의 욕망, 환상, 그리고 징후, 한국학술정보, 2009, pp.19~20

17) 오혜경·홍이경, 브랜드 아파트의 단위평면 각 실의 경향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84호, 2011.02, p.137

18) 함민정·오혜경, 아파트 단위평면구성과 소비자의견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82호, 2010.10, p.121

못하는 결핍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었다. 이는 사용자가 주도하는 듯 보이는 욕망-소비 현상이 그 이면에서는 대타자가 제시하는 차별소비를 모방하는 모방소비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게 만든다. 권력은 욕망하는 것들을 선점하는 구조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거에서 공간-권력이 단순히 사용 주체들에게만 주어지고 전유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 영역을 파고드는 거시적 관점이 주거의 생산-소비의 장 안에 이미 항상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3.3. 사용-행태적 측면 ; 신체성 가구

영화 <여자, 정혜(2005)>에서 주인공 정혜는 집의 다른 어떤 공간보다 주로 소파에서 시간을 보낸다. 소파에 기대어 멍하니 TV를 보거나 소파에서 간단한 인스턴트 식품을 먹거나, TV를 켜놓은 채 소파에서 잠이 든다. <우리 결혼했어요(2008)>라는 TV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정형돈의 평소 집에서의 생활패턴을 보여줄 때 가장 많이 등장한 공간도 소파이다. 소파를 차지하며 소파와 일체가 되어 꼼짝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지탄과 공감을 동시에 자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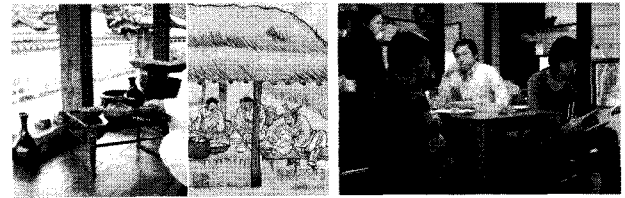


<그림 10> 영상매체에서 보이는 소파의 신체적 특성

영화에서 묘사된 소파는 주인공 정혜의 외로운 일상을 심리적으로 상징하는 매개물이었고, 오락프로그램에서 드러난 정형돈의 소파는 현대인들의 습관적인 일상을 사회적으로 상징하는 매개물이었다. 소파라는 동일한 소재가 각기 다른 상징성을 띠며 사용되었지만,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대개의 경우 소파라는 가구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소파는 앉고, 기대고, 눕고, TV를 보고, 음식을 먹는 행위 등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소파의 특정한 형태와 배치가 소파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행위들을 특정한 범위 내에서 일어나게 만든다.

이처럼 가구들 중에서 현대인의 신체성을 유달리 통제하는 것들이 있다. 소파 이외에 식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식탁이 놓여 있는 장소로 직접 와야 한다. 식탁은 밥을 먹는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배치된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가구가 아닌 사람이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전통 한옥의 경우에 식사는 밥상에서 이루어졌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구가 이동하였다.

이처럼 주택에서 고정된 배치를 가지는 가구는 그 장



<그림 11> 밥상과 식탁의 행태 차이

소에 그 가구가 있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특정한 신체적 행위들을 유발한다. 침대에 가서는 잠을 자고, 옷장에서는 옷을 꺼내 입고, 책상에서는 공부나 컴퓨터를 하고, 거실 소파에서는 TV를 보고, 식탁에서는 밥을 먹는다. 침실, 거실, 주방, 식당 등 각각의 기능으로 분화된 공간에는 그곳에 적합한 기능의 가구가 배치되고 그곳에 어울리는 행위들이 발생하게 된다. 현대 주거에서 가구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의 장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유발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디자인 개념들 중에서 행위유발이라는 뜻의 '어포던스(affordance)<sup>22)</sup>'라는 개념이 있다. 예를 들어 육상생물이 땅 위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물이 지표면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표면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지표면은 땅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들을 유발하는 어포던스를 가진 형태이다. 결국 어떤 특정한 어포던스를 디자인에서 유도한다고 할 때, 어포던스는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디자인에 대한 반응의 행동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이너들은 자신이 디자인한 물건이 직관적으로 보기만 해도 어떻게 사용할지 대략 짐작하여 쉽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디자인을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어포던스가 잘 적용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전의 경험을 추론하여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제품을 사용할 것이다. 즉, 소파나 식탁이 어포던스를 가지며 그것들이 위치할 것만 같은 장소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때 이미 소파나 식탁을 통해 유발되어지는 행동들은 어느 정도는 예측 범위 안에 들게 된다. 소파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꼭 이해해야만 한다는 강제성은 없지만, 이미 그 형태와 배치를 통해 소파는 소파스러운 행위를 유발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즉 가구는 형태와 배치의 어포던스를 통해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며 일정 패턴의 행태를 유발하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가구의 사용-행태적 권력은 주체의 일상적 차원에 밀착하여 신체의 무의식적 반응을 습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더 큰 위력을 가진다. 이데올로기와 같은 거대 담론

22) 어포던스는 영어 'afford(제공하다)'에서 명사화된 조어로 디자인 분야에서는 사용성과 유용성의 관점에서 어포던스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EC%96%B4%ED%8F%AC%EB%8D%98%EC%8A%A4> 참조

은 이데올로기성을 숨김으로서 비로소 이데올로기가 된다. 푸코의 지적에서처럼 권력은 “인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그리고 장치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sup>23)</sup> 이와 같이 신체를 통제하고 나아가 주체의 의식을 조절하는 권력을 푸코는 ‘생체 권력’이라 부르고 있다. 소파와 같은 일상의 미시적 차원의 소재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숨기는 장치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인간의 신체에 밀착하여 일상의 계열화된 관계의 장을 의존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쉽게 간과하기는 힘든 문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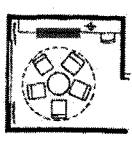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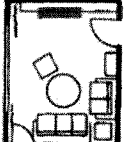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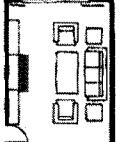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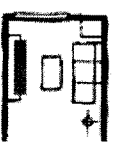
### 3.4. 사용-가치적 측면 ; 주거 권력의 핵심, TV

한국의 현대주거에서 다른 공간에 비해 거실이 공간배치의 중심이 된 이유는 한국의 오랜 주거 전통인 안마당과 대청마루의 기능이 현대 주거에서 거실로 흡수 통합되면서부터이다.<sup>24)</sup> 거실에서 주로 일어나는 주생활 행위로는 단란, 휴식, 오락, 개인행위, 아동 놀이, 접객 등이 있다. 주거학에서는 기능별로 크게 커뮤니케이션, 정보습득, 엔터테인먼트의 기능이 거실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 중 거실의 엔터테인먼트 행위의 대부분은 TV 시청이다. 최근에는 스마트TV의 보급으로 인해 TV가 엔터테인먼트 이외에도 컴퓨터와 같은 정보습득과 커뮤니케이션의 기능까지 함께 수행할 전망이다. 주택 내 일상행위의 가치선호도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TV시청은 대개의 경우 ‘즐거움’의 가치이거나 ‘중시’의 가치로서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다.<sup>25)</sup> 주거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인 거실 내에서 그 거실 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우리들의 즐거움의 가치로 동일시되고 있는 대상은 다름 아닌 TV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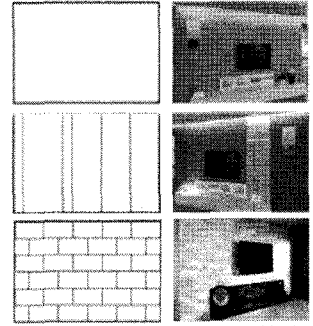
주거 내에서 TV의 위상은 주거공간의 인테리어디자인 경향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거실을 계획할 때 대개의 경우 평면의 형태에 맞춰 TV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나머지 가구를 배치하게 된다.

또한 현대주거에서 주거 인테리어의 시각적 중심에는 아트월이 있다. 아트월은 실내의 중심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벽면 장식으로써 실내공간의 정서적인 안정과 심미

<표 2> 거실의 TV와 가구배치 유형

| 원형  | 코너형   | U자형   | 직선형   |
|---|---|---|---|
|  |  |  |  |

성을 표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디자인 요소이다. 특히 거실의 아트월은 주거의 전체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주거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림 12>에서 보이듯 주거공간의 핵심구성요소인 거실 아트월에도 그 중심에는 항상 TV가 자리 잡고 있다.<sup>26)</sup>



<그림 12> 아트월 디자인 사례

이처럼 TV는 현대 한국의 주거문화를 논할 때, 꼭 짚어봐야 할 중요한 핵심 키워드이다. TV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배치된다. 또한 대개의 경우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도 TV 앞이다. 권력이라는 것이 상대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이려면, 현대 한국의 주거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TV일 수도 있다. TV가 가장 큰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TV라는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방을 제외하고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장소인 거실에서 가족들은 각자 눈앞의 TV만을 주시하고 있다. 가족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각 가정의 중심가치와 선호도에 따라 거실이라는 공간을 활용하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거실과 같이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공간을 TV가 전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현상은 분명 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그림 13> TV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실의 주생활 행동

배치가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공간의 성격이 인간의 행태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TV가 사라진다면 거실의 성격과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태 또한 달라질 것이다. 그러한 사례로 코우이치 기무라(木村輝一)가 일본 시가현에 설계한 주택을 들 수 있다. 이 주택에서 거실은 외부의 전망이 좋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다. 대신 싱크대를 중심에 둔 주방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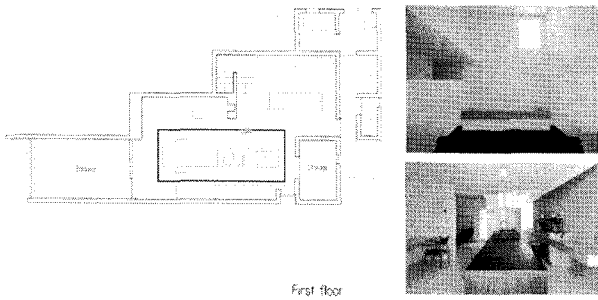
23) Foucault, Michel,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 2003, p.298

24) 박형진·류호창, 조선 후기 사회구조의 변화가 주거공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1호, 2003.12, pp.19~29

25) 박운정·김경연·이연숙, 라이프스타일공학 구현을 위한 주거공간 내 생활행위 분석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3호, 2007.05, p.129

26) 박영순·김은정 외 3인, 공동주택 실내공간 아트월의 구성특성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70호, 2010.04, p.150. <그림 12>는 박영순 논문의 <표 8>을 재인용한 것이다. 아트월 디자인에 항상 빠지지 않고 TV가 중심에 배치되어 있는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그림 14> 코우이치 기무라, 시가현 주택, 2010

거실에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었던 장면이 주방으로 옮겨지며 TV 앞의 커뮤니케이션과는 다른 행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생겨나게 된다.<sup>27)</sup> 특히 최근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자녀의 육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배치는 주거의 중심가치가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오늘날 집이라는 문화장 내에서 TV 중심의 배치는 결국 주체가 자신의 주거 공간을 어떠한 가치와 기준으로 꾸려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자기검열적인 화두가 아닐 수 없다. 건축가 정기용은 어느 인터뷰에서 오늘날의 집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대합실처럼 ‘대기’하는 곳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하였다.<sup>28)</sup> 거주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주거의 공간-권력의 중심을 어디로 옮기고 새롭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 4. 결론

건축공간에서 권력 장치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을 것만 같은 건축 공간을 하나만 꼽자면, 그것은 바로 주거일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집은 외부로부터 보호되고 타자의 권력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성역과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

주거에서 나타나는 공간-권력은 일상의 미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공간-권력의 건축적 속성상 주거에서도 공간적 배치와 주체의 욕망적 관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사회구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거의 특성상 공간-권력은 주로 생산과 소비, 사용 행태, 사용 가치적 측면에서 두드러져 보인다. 한국의 대표적 주거형태인 아파트의 공급과 구매 구조에서 소비 주체는 주택시장을 주도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라캉적 의미에서 볼 때, 주체 자신의 욕망이 아닌 대타자(사회, 계층 등)의 욕망을 대리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리라고 기대되었던 주거 내 공간-권력이 단순히 사용자 자신에게 속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음으로 주거 공간의 사용적 측면에서 행태적인 부분과 가치적인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사용-행태적 측면에서는 주거에서 주체의 행태를 유발하고 주체의 신체에 밀착되어 ‘생체 권력’을 만들어내는 가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일상의 아주 미세한 영역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길들여진다는 측면에서 신체성 가구의 사용 방식은 주체가 일상의 계열을 재조직화할 때 반드시 재고해봐야 할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사용-가치적 측면에서는 현대인들의 의식·무의식과 일상·비일상을 지배하는 TV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개의 경우 TV는 현대 주거 공간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배치되면서 막강한 공간-권력을 가지적인 영역에서도 가지고 있었다. 주체가 자신의 주거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검열할 때 TV의 유무 또는 배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간-권력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거대담론은 일상의 장에서는 너무 다양하고 미세한 스펙트럼 속에 스며들어 있어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명징하게 밝혀내는 것이 상당부분 까다롭다. 그러나 미셸 푸코가 19세기라는 제한적인 시공간의 장에서 권력의 미세 구조를 밝혀냈듯이 정교한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처 진행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은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미진하나마 연구 목표로 삼았던 인문적 담론의 공간화, 즉 공간의 해석학에 조금이나마 가깝게 접근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Fisher, Bell, 환경심리학, 이진환 외 2인 역, 학지사, 1997
2. Foucault, Michel, 감시와 처벌, 오성근 역, 나남, 2003
3. Foucault, Michel, 광기의 역사, 이규현 역, 나남, 2003
4. Harries, Kastern, Building and the terror of time, *Perspecta: the Yale Architectural Journal* 19, 1982
5. Harvey, David,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희·박영민 역, 한울, 2000
6. Lacan, Jacques, 욕망이론, 권택영 편역, 문예출판사, 2005
7. 김상환·홍준기 외, 라캉의 재탄생, 창작과 비평사, 2005
8.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다, 기파랑, 2011
9. 서윤영, 건축, 권력과 욕망을 말하다, 궁리, 2010
10. 안은희, 건축의 욕망, 환상, 그리고 징후, 한국학술정보, 2009
11. 오창섭, 9가지 키워드로 읽는 디자인, 세미콜론, 2007
12.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2000
13. 전남일·양세화·홍형욱, 한국 주거의 미시사, 들베개, 2009
14.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어썬, 2009
15. 박윤정 김경연 이연숙, 라이프스타일공학 구현을 위한 주거공간 내 생활행위 분석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호, 2007.05
16. 박영순·김은정 외 3인, 공동주택 실내공간 아트월의 구성특성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70호, 2010.04
17. 안은희, 공간-환상을 통해서 본 현대실내건축의 특이성 연구, 경원대 박사학위 논문, 2008

27) <http://blog.naver.com/pseagul/150094598456>, 2011-06-24

28) <http://zine.media.daum.net/ladykh/view.html?cateid=3000&newsid=20060822080708807&p=hani21>, 2011-06-24

[논문접수 : 2011. 06. 29]

[1차 심사 : 2011. 07. 15]

[게재확정 : 2011. 08. 05]